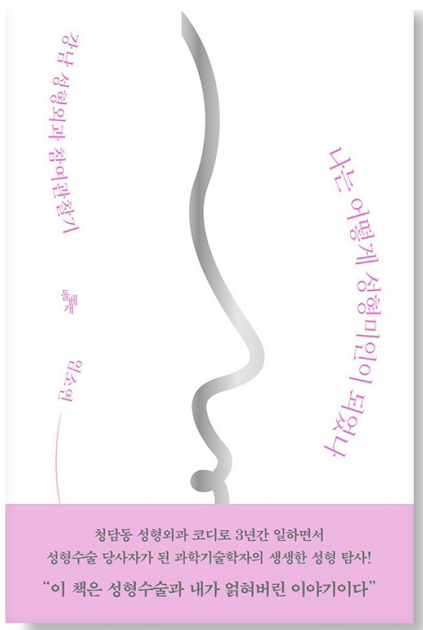


서평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성형수술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

임소연(2022),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 돌베개.

김소리*



내게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자존감 낮은 이들의 안타까운 선택’, 좀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자면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와 획일화된 미의 기준 주입에 따른 결과’ 정도의 생각이 떠오른다. 그 이상 자세히 성형수술을 한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과학기술자 임소연이 쓴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는 ‘왜’ 성형수술을 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성형수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에 의하면, 성형수술 연구의 대부분은 동양인들이 서양인을

닮고 싶어서 하는 행위라거나 가부장적 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적 압력이나 그로 인한 차별 경험 속에서 하나의 자구책으로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런 연구가 아닌 성형수술을 받은 그리고 받을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 자원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파서 한 수술이 아니라 예뻐지고 싶

*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어 한 수술이 잘못되어 힘들어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 책은 그동안 성형수술에 관하여 우리가 잘 이야기해본 적 없는 성형수술의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 나아가 우리는 성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주제의식 자체로 신선하고 특별한데, 저자가 직접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3년간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다는 점, 나아가 스스로 쌍꺼풀 수술과 양악수술이라는 성형수술을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성형수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학자가 성형수술 대국민 한국의 강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관찰하고 직접 성형수술을 경험한 뒤 나름의 분석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 저자의 성형수술기에 대한 부분이다. 성형수술 후 ‘예뻐진’ 얼굴에 이르는 과정은 실로 지난하다. 메이크오버 티비쇼에서처럼 비포에서 애프터로 ‘짜잔’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붓기로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여러 불안감을 마주하는 듯하다. 나아가 많은 성형수술 당사자가 성형 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디스포리아’를 겪는 사실에 대한 부분 역시 인상적이었다. 성형수술 후에 내 몸에 대한 만족감은 자기 몸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기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비롯되며, 성형 후 불일치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의 하나로 셀카를 든다. 당사자 스스로 예뻐 보이게 연출한 셀카를 열심히 찍는다는 것이다. 저자 역시 이러한 ‘셀카 중독’(?)이 수술 후 1년이 조금 지나서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셀카를 찍지 않게 되었는데, 디스포리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술 후 내 얼굴이 내가 기대한 얼굴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형수술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눌 수 없으며, 대부분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그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 어딘가에 속한다. 또한, 성형수술한 당사자들에게 ‘예뻐졌다’는 생각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몸의 감각, 거울이나 사진 속의 몸, 남들의 평가 중 하나만 변해도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변화된 얼굴에 안정적인 인식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형수술의 과정은 이토록 복잡하고, 과학기술로써 변화된 몸에 적응하는 기간 역시 상당한 것이었다. 이 행위를 함에 있어 당사자가 감당하는 몫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잘 돌볼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성형수술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에 속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저자는 자기 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 등에 잘 대처해서 스스로 아름다워졌다고 믿을 수 있는 의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성형수술로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난 친구나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결국 나와 다른 타자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언젠가 인류가 만나게 될 ‘포스트휴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 저자는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몸도 ‘순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며, 이를 자각한다면 성형수술을 한 이들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살(flesh)의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살은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여부 등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는 아직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저자는 이에 기반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성형수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 성형수술 당사자이자 연구자로서 성형수술을 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책이다. 아직은 성형수술을 ‘왜’ 하는가에 대한 서사에 익숙하여 저자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성형수술을 한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1) 현 인류보다 더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지식과 기술의 사용 등에서 현대 인류보다 월등히 앞설 것이라고 상상되는 진화 인류. 생체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진화로 반영구적인 불멸을 이룰 것이라고 여겨진다(네이버 국어사전).